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모두가 조심하여 건강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주보모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가정예배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 연수모임이 오후 2시부터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교사 연수모임이 29일(토)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연수모임은 1월 29일에서 2월 5일로 변경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 호

2022년 1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Well-Being 과 Well-Dying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때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더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생활을 한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병세가 완화되기 보다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기 아닌 임종 전 가족,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85세 김병국님은 말기 암 환자로 1~2주후의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생전(生前) 장례식을 열기로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당일 조문객 40명이 도착했고, 병원에서 마련된 세미나실에서 김병국님과 지인들은 2시간에 걸쳐 다과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 고마웠어, 미안했어, 행복하게 잘 살아.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이나 한 끼 같이하고 노래나 부르려고 했는데....”

또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정신상담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의학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TV프로그램에서 그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사님이 도착한 초대받은 장소에는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긴 할텐데.. 아우, 자꾸 봐도 당황스럽네” 그 곳에는 남은 시간

이 일주일 밖에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은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박사님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준 스승님을 찾아가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유치원부터 함께했던 오랜 친구를 찾아가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남게 될 가족들을 부탁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일하며 친하게 된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한 사업가가 처음으로 시작하여 유명해진 생전 장례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Well dying에 대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과 이 땅에서의 이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씻기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번뿐인 죽음.. 사실 죽음만이 인생의 한 번뿐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순간이 한 번뿐인 시간인데 평범하게 흘러가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Well Dying,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세상적인 시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기쁜 날, 힘든 날, 잊고 싶은 날, 웃는 날 모두 있겠지만 용기 내어 인생의 하루하루를 한 번뿐인 날과 같이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10장 1~16절

제목 :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29 341 45 420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 솔로몬의 잠언

2~15절 여러가지 잠언

16절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

#### 2. 내용의 의미(Why)

솔로몬은 아들에게 전하듯이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로운 길에 서기를 권면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의리가 있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물에 눈이 멀고 그 목적을 위해 사람들과 좋은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① 자신을 가꾸는 삶을 살아갑시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합니다.
- ②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합시다. 담아두어야 할 말과 쏟아내야 하는 말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입술을 잘 지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합시다.

## 생활규범

공동체적인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공동체적인 삶은 신앙과 생활, 형식과 삶의 실천이 균형을 이룹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 '생활규범'(Life style) 12가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12가지 생활규범-

- 1) 하나됨을 지향하는 생활
- 2) 삶을 나누는 생활
- 3) 지체에 충실한 생활
- 4) 자신을 객관화하는 생활
- 5) 섬기는 종의 생활
- 6) 자연을 사랑하는 생활
- 7) 신실한 약속생활
- 8) 규모 있는 시간생활
- 9) 모일 때마다 찬양생활
- 10) 부드러운 언어생활
- 11)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덕생활
- 12)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책임생활

사람마다 각자 개성이 있듯이 교회마다 그 특성이 있으며, 교회의 특성에 따라 교인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생활규범이란 사랑방교회에서 지향하는 내면적인 믿음이 공동체적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돕는 생활양식(Life style)입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침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누가복음 3 : 5-6  
26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2 : 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80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정재훈목사

마가복음 16 : 1- 7  
456

설교자  
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0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16(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강춘자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 배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제자들의 믿지 않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접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열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자들은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남.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양 떼를 먹이라는 말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사랑방이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 곳은 어디 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체는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모임을 더욱 세워나갑시다. 사랑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이야기

오늘은 졸업여행 마지막 밤이 있는 네 번째 날이다.  
 여행 와서 많은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모두 재밌었지만 친구들이랑 해서 더 재미있었다.  
 나는 숙소가 너무 좋아서 좋았다. 첫 번째 숙소 때 라엘이가 좀 아파서 잠을 못자긴 했지만 우리끼리 있는 숙소여서 자유로워서 좋았다.  
 두 번째 숙소는 시원하게 잘 수 있고 조식이 맛있어서 좋다. 오늘 저녁에 편의점에서 각자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는 게 재밌고 좋았다.  
 어린이학교 마지막 여행인데 이렇게 후회 없이 보내고 있다.

- 권윤서

이번 여행은 우리 6학년들의 어린이학교 마지막 여행인 졸업여행이다.  
 이번엔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회 분들 덕분에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조끼리 나눠 다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4박 5일 동안 여행을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우리 학년 다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한 것이다. 이번 여행이 다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어서 좀 아쉽지만 정말 재밌고 감사한 여행이었다.

- 윤치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학교 졸업을 앞둔 이라엘입니다.  
 이번 졸업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1분 1초를 소중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막상 헤어지게 되니 당연하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되면서 다른 여행보다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등을 배웠습니다. 어린이학교에서 생활한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우리는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왔다.  
 첫째 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우린 애월과 성산 이렇게 두 곳에 숙소가 있었다.  
 마지막 여행이고 제주도로 왔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해물칼국수가 제일 맛있었다.  
 여러 곳도 돌아다녔다. 스누피가든, 사려니숲, 신천목장, 아부오름, 서귀포 등등-.  
 마지막 여행이어서 아쉽다는 점 외에는 참 만족스러운 여행이다.

- 이수환

오늘은 졸업여행 네 번째 날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다. 여행 오니까 하루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간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 오후에 했던 방탈출 게임이다. 친구들이랑 같이 퀴즈를 푸는 게 웃기고 박진감도 넘쳤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오늘 밤 야식으로 먹을 컵라면이 제일 기대된다.  
 졸업여행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도 있지만, 상상만큼 재밌기도 해서 좋다.

- 임채경

저는 재롱이와 꾸러기를 졸업하고 어린이를 졸업하게 되는 최정원입니다.  
 저에게 이번 여행은 6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졸업여행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했기 때문에 여행 떠나기 2주 전부터 짐을 싸 놓았었고, 출발 전에 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를 셀 수 없이 했는데... 막상 와 보니 다른 여행들과 다르지 않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당연하게 함께 했던 시간과, 항상 함께 여행을 했던 선생님들과의 여행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고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여행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 최정원

## 어린이 졸업여행

어린이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학교는 계속 다른나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후로는 여행이 쉽지 않아 인천, 부산 등 국내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4박 5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12명으로 공항에서 만나는 것도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모여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고 제주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졸업생의 가족이 환영 인사말이 담긴 종이를 들고 마중 나오셨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으며 여행을 시작하니 느낌이 또 남달랐습니다.

모든 장소에서는 거리유지를 하려 노력하였고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는 것도 어려웠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사진찍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사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사진을 찍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체험을 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들과 체험들을 준비한 여행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행 중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여행팀이 그에 맞춰 여행을 급히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해 주어 함께 여행하는 내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욕구도 다양하고 소소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어린이학교 선생님들 한분 한분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 내내 좋은 날씨와 어려움 없이 모든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여행과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좋은 날씨와 순적인 일정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내려 아이들 짐가방을 찾아주고 작은 모둠으로 공항을 빠져나와 부모님과 만났고 작은 눈인사와 함께 아이를 보냈습니다. 함께 잘 다녀왔다, 또 보자 포옹하고 사진 찍을순 없었지만 함께 할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기간동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어짐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잠언 12장 18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 병력을 집결시키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행복교회>

1) 복음의 참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누림이 있게 하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교회 될 수 있도록,

2) 속히 이 나라와 더불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부터 평안을 찾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도록,

3) 환우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영육 간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사랑방공동체가 시작하는 중에 마음이 잘 모이도록

- 대설주의보와 강한 추위 중에 모두의 건강을 위해

## < 생활공동체 소식 >

하얀 함박눈이 쏟아진 무림리와 공동체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포근했습니다. 눈이 내린 공동체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인 공동체 식구들은 제주도에선 좋은 마무리의 시간을 가졌고, 그간 발행되지 못했던 주부모임집 작업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들을 위해 각처에서는 회의들이 있었고 시설 정비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